

2015년 한국기독교 부활절맞이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고난주간 기도자료집

2015. 3. 30 ~ 4. 4

아름과 고통의 자리에서 단식은 찾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자리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의 소명이 세상의 빛이 되길 바라며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2015년 한국기독교 부활절맞이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고난주간 기도자료집

—
2015. 3. 30 ~ 4. 4

증인이다

이들과 고통의 자리에 서 탄식은 찾아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자리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세상의 빛이 되길 바라며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목 차

인 사 말	03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	
고난주간 월요일 예수의 수난 예고	04
믿을 수 없었던 이야기	
고난주간 화요일 제자의 배반1	06
말도 안되는 이야기	
고난주간 수요일 제자의 배반2	08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 이야기	
고난주간 목요일 예수의 사랑	10
죄 없는 죽음의 이야기	
고난주간 금요일 예수의 죽음	12
다시 피는 희망 이야기	
고난주간 토요일 부활 준비	14

3월 30일~4월 4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임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수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따라 걷다 보면 놀랍게도 부활의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의 아이들이 바다 속으로 빠져들던 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둘러쳐진 죽음의 힘을 온 감각을 통해 느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이라는 억울한 죽음을 낳았고, 아직도 아홉 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당한 고난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아픔과 고통의 탄식은 찾아들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전혀 규명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는 고난의 자리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세상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부활의 기쁨이 된 것처럼, 희망의 내일을 향한 우리의 진통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빛으로, 부활의 길로 이어지기를 그리스도께 간구합니다.

고난주간 기도자료집은 세월호의 아픔과 고난을 기억하고, 또한 세월호로 상징되는 우리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과 실천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고난에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기도자료집 안내

1. 성경은 《공동번역 성서》를 사용하였습니다.
2. 기도자료집 내용 중 〈증언〉은 세월호 유가족의 육성증언을 바탕으로 한 〈금요일엔 돌아오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3. 특별히 〈기도〉는 세월호 유가족께서 직접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

예수의 수난 예고

말씀 묵상

“이 향유를 팔았더라면 삼백 데나리온은 받았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투덜거렸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거기 들어 있는 것을 늘 꺼내 쓰곤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장례 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 요한복음 12장 5~8절

증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누구는 카카오톡이 되네, 누구는 살아 있다고 연락이 왔네, 몇 명은 구조할 수 있네 그러는데 우리 승희는 아무 연락이 안 되니까 귀를 막고 싶었죠.”

- 단원고 2학년 3반 신승희 학생의 어머니 전민주 씨 이야기 중에서

“2003년 대구지하철 사고의 유가족들이 와서 그랬다고 하던데 ‘우리가 특별법을 못 만들어서 이런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죄송하다’라고요. ... 이모부가 “야, 이 시키야. 슬테없는 소리 말고 선생님 말 잘 듣고 갔다 와” 하고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이모부가 진도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게지. 한 말이 있어서 물론 그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별은 말이 죄라서...”

- 단원고 2학년 9반 임세희 학생 아버지 임종호 씨 이야기 중에서



기도

혼돈과 무지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그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죄는 날날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가 힘겨운 것은 숨겨진 인간의 계획과 욕심을 드러내고
이를 포기하라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투덜거림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양을 반대합니다.
너무나 똑같은 이유를 대며 하는 그 말에는
유다처럼 자기 주머니로 들어와야 할 돈을 헤아리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싸한 포장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주시
시오.

주여, 저희가 무심코 내뱉는 말에 담겨있는 돈 중심, 생명 경시, 공감 부재, 무지를
용서해주시시오.

이제는 예수님처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며, 무지로 인해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수난예고를 통해 저희의 죄를 들여다보듯이 아무 죄 없이 어
른들의 죄로 인해 죽어간 304명의 목숨과 그들을 보내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온갖
소리로 숨죽여 울고 있는 유가족들을 통해 이 시대의 죄악과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
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회개 가운데 다시 부활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단원고 유예은 어머니

함께 드리는 기도

1.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2.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을 수 없었던 이야기

제자의 배반 1

말씀 묵상

베드로가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은 말을 하였다.

- 마가복음 14장 29~31절

증언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처음엔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한 놈(해경)은 시간 끌면서 대충 입으로 때우고, 한 놈(정부)은 언론플레이하고, 한 놈(언론)은 화면에 계속 똑같은 것만 보여주고... 뭔가 숨기려고 했던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어요. ... 이 사회는 소신을 지키면서 살기도 힘들지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가족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더 힘든 곳이에요. ... 그동안 허울만 좋은 민주주의에 국민들이 완전히 속았어요.”

- 단원고 2학년 10반 김다영 학생 아버지 김현동 씨 이야기 중에서

“이 개떡 같은 나라, 다 망해버려라! 너희들, 애들 다 죽여서 건지려고 그랬지? 내가 가만 보니 그러네! 어정쩡하게 살려뒀다가는 애들이 이 나라 다 헤집고 돌아다닐 거 같으니까 다 죽여서 건지려고 물에 풍덩 빠뜨렸지!”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 단원고 2학년 6반 신호성 학생의 어머니 정부자씨 이야기 중에서



기도

“큰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지 않으려 하시나이까?”(계6:10) <개역개정>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신32:35) <개역개정>

하나님, 세상살이가 팍팍하고 힘들지라도 사람 사는 정을 나누며 소박하고 행복한 내일의 희망을 위하여 꿈을 가꾸며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소신을 지키며 살기도 힘들고 가족을 지킬 수도 없는 현실 앞에 저는 못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앞길은 캄캄하고 희망은 없습니다.

저희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누가 저희의 삶을 이토록 참담한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꽃봉오리도 피보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아이들이, 세상의 탐욕 때문에 소중한 꿈을 빼앗긴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하고 원통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러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상처받아 고통당하는 불쌍한 이들을 감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비웃는 악한 세력들을 속히 심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진실이 밝혀지고 거짓과 탐욕으로 살찌는 악의 근원이 뿌리 뽑혀 정의가 강물처럼 넘실대는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단원고 김다영 아버지

함께 드리는 기도

1.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명의 실종자들을 조속히 찾기를 기도합니다.
2. 맘몬보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제자의 배반 2

말씀 묵상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같이 음식을 나누시면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바로 나를 배반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죽음의 길로 가겠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 마태복음 26장 20~24절

증언

“저희 유가족은 지금 세월호를 두 번 타고 있습니다. 그런 유가족들에게 국민이고 정치인이고 언론인이고 할 것 없이 모두 컨테이너를 엮고, 쇠덩어리를 엮고, 쌀가마니를 엮어요. 선원들보다 해경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 단원고 2학년 1반 문지성 학생의 아버지 문OO 씨 이야기 중에서

“내가 내 자식을 죽였어유.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괴롭고 눈물이 나유. 아빠가 판단을 잘못해갔고 애를 죽인 것 같아...”

- 단원고 2학년 3반 김소연 학생의 아버지 김진철 씨 이야기 중에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이들도 그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아이들이 되어 있길 소망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나라 이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주께서는 용서하시되
이 땅에서는 죄인들이 진실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 이도 주님이요, 능히 이기게 하실 이도 주님이시니
안전하게 헤쳐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니
그 영광을 먼저 간 저희 아이들을 사용하시어 비추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단원고 문지성 아버지

함께 드리는 기도

1. 힘들고 지친 상황에 놓인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고난 받는 이웃들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 리 를 변 화 시 키 는 사 랑 이 야 기

예수의 사랑

말씀 묵상

한편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겨주신 것과 당신이 하느님
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
고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그는 “주께
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너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안 됩
니다. 제 발만은 결코 씻지 못합니다.” 하고 사양하자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씻
어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 하셨다.

- 요한복음 3장 3~11절

증언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다른 사람들 마음에 큰 빛이 되면 참 좋겠구나, 밝은 빛이 되
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 단원고 2학년 8반 김제훈 학생의 어머니 이지연 씨 이야기 중에서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간다. 그거예요. 이 길 가다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가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언젠가는 밝혀줄 거다.
그건 확신해요.”

- 단원고 2학년 5반 이창현 학생의 어머니 최순화 씨 이야기 중에서



기도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가슴에 커다란 생채기를 입은 채로 살아내기가 버겁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는데, 그 사랑으로 가는 인생길은 너무도 험난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들을 바다 속에 수장시킨 세력들에 대한 분노가 저희를 삼키려 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주세요.

진실을 밝혀내 마땅히 벌 받을 사람들을 벌주는 게 주님의 정의인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값을 치르느라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른들의 탐욕으로 인해 대신 죽은 생명들을 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듯이 진실이 밝혀지는 그 새벽이

이 나라에도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주님도 이 땅에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단원고 이창현 어머니

함께 드리는 기도

1.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고난 받는 사람들의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 없는 죽음의 이야기

예수의 죽음

말씀
묵상

세 시에 예수께서 큰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몇이 이 말을 듣고 “저것 봐!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하였다. 어떤 사람은 달려오더니 해변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의 입에 대면서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큰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지켜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말하였다.

- 마가복음 15장 34~39절

증언

“불구가 된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에서도 불구, 판단하는 것에서도 불구, 결단하는 것에서도 불구.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가 없어, 겁이 나서. 윤 일병 사건 같은 사회문제가 터지면 다 내가 겪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 데로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 단원고 2학년 2반 길채원 학생의 어머니 허영무 씨 이야기 중에서

“선생님 말씀이 애가 오늘 저녁에 엄마 아빠가 집에 없으니 형을 만나러 가려고 일을 꾸렸는데 이모가 와서 실패했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들으니가 소름이 짝 끼치는 거야.”

- 단원고 2학년 7반 이준우 학생의 어머니 장순복 씨 이야기 중에서



기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신 주님!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가 구원함을 받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듯이 저희는 저희에게 닥쳐 온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이 저희의 손을 붙잡아주시고 위로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또한 이 나라가 올바르게 서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주님! 지난 한 해 아니 지금도 저희 뿐 아니라 온 국민이 너무나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픔에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정의의 주님! 이 땅, 이 나라에 정의와 진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오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단원고 전하영 어머니

함께 드리는 기도

1. 두 번 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픔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2.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시 피 는 희 망 이 야 기

부활 준비

말씀
묵상

의회 의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올바르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를 죽이려던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찬동을 한 일이 없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동네 아리마태아 출신으로 하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던 사람이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청하여 승낙을 받고 그 시체를 내려다가 고운 베로 싸서 바위를 파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장사지낸 일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 날은 명절 준비일이었고 시간은 이미 안식일에 접어들고 있었다. 갈릴래아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도 그 곳까지 따라가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어떻게 모시는지 눈여겨 보아두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 누가복음 23장 50-5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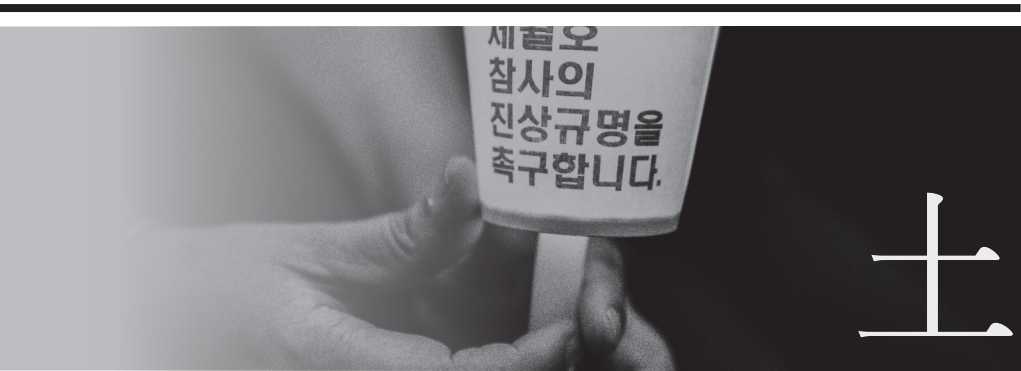
증언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 건 아닌가 싶고, 더 부패되기 전에 뭘 밝히려는 뜻 아닐까도 싶고, 그렇게 생각하니깐 그것도 감사하다 싶고, 우리에게 미지 뭇가지 살아가라고 짐을 주신 것도 같고, ... 이게 다 뜻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는다. 미지가 바라는 세상, 그 길을 가느라 아빠는 바쁘다.

- 단원고 2학년 1반 유미지 학생의 아버지 유해종 씨 이야기 중에서

“웃는 모습으로 그냥 기억하고 싶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그래야 내 아들이 죽었다 생각이 안 들고 내 마음 속에서 같이 살아가지, ... 저는 이렇게 앞으로 계속 건우 이야기 하면서 건우를 느끼며 함께 있는 듯이 살아가려고요.”

- 단원고 2학년 4반 김건우 학생의 어머니 노선자씨 이야기 중에서



기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너무나 죄악 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천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 소망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한가운데서 1년 전 아까운 304명의 생명들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천국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야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동반자로 목사인 아버지의 대를 잇고자 했던 아들을 보내고 저는 아들 뉘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육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아들을 찾아가 날마다 목 놓아 울며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저처럼 자식의 몫을 대신하려는 남은 가족들의 몸부림을 주님 안아주세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이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 - 온 국민, 특히 책임 있는 자들 - 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304명의 희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부활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단원고 임요한 아버지

함께 드리는 기도

1.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위해 기도합니다.
2. 하루빨리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기를 기도합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416 세월호 참사 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 지음

김보통, 마영신, 손문상, 유승하,
윤태호, 조남준, 최호철, 홍승우 | 그림

창비 | 2015년 01월 16일 출간

고난주간 기도자료집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창비출판사

2015년 한국기독교 부활절맞이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고난주간 기도자료집

2015. 3. 30 ~ 4.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110-736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기독교회관 706호

전 화 : 02-743-7323

팩 스 : 02-744-618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8-281024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